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은행 나뭇잎과 은행을 이용하자

전분, 단백질, 지방, 당분 등이 많이 들어 있어 폐결핵 환자나 천식 환자가 오래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가래를 줄여 주는 약리작용을 한다. 성육감퇴, 뇌빈혈, 신경쇠약, 전신 피로 등과 뇌혈관을 개선해주는 효능도 있다. 예전부터 은행은 혈액순환을 돕고 폐를 튼튼히 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데 사용해왔다. 가슴앓이나 가래, 천식에도 널리 이용됐다.

익힌 은행은 여성들의 대하증, 피부미용, 유선염, 유방염에 효과가 있으며, 남성은 조루증 치료와 강장제, 오줌싸개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먹기에 간편하며 프라이팬에 볶거나 불에 구워 먹어도 되며 기름을 짜거나 짚어서 복용해도 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은행의 약효는 익힌 것과 날 것의 쓰임새가 다르다. 익힌 것은 오줌싸개(요실금)를 치료해 지노 효과가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날 것은 오줌이 자주 나오게 하는 빈뇨 효과가 있으며 열을 식히고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가로수는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를 말하는데 국토가 개발되면서 많은 도로가 개통되고 가로수가 선택적으로 심어졌는데 그 가로수가 관광자원으로 한몫하고 있다.

봄철에는 빗나무 가로수, 여름에는 배롱나무 가로수가 꽃을 피워 귀염을 보이고, 녹음을 조성하면서 가을철에는

단풍으로 관광자원이 되는 것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가로수다.

은행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현재 절강성(浙江省)에 약간 자생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의 고산·고원지대를 제외한 온대에 분포한다. 높이는 5-10m나 40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은행나무는 화재와 공해에 강하고 한번 심으면 1000년 이상 사는 유실수이며(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살) 산소 배출량이 다른 수종의 5-6배라 한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것은 60년대 이후 국토 개발 사업으로 도로가 개통되면서 선택적으로 심어졌고 이것이 자라서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귀염을 보이면서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의 시목(市木)은 은행나무다. 도심을 중심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많이 심겨 있다.

은행나무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속성수로서 녹음조성이 잘되고 가을이면 노란색 단풍으로써 한몫하므로 광주 시민이 사랑하는 시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은행나무 묘목은 은행나무 씨앗인 은행을 파종해서 묘목을 만드는데 암수가 따로 구워서 암그루에서만 은행이 연다. 따라서 은행 묘목은 최근에는 씨를 파종하여 돋은 어린 묘에 암그루 접수를 접목해서 만든 접목 묘와 접목을 하지 않은 일반 묘가 있는데 일반 묘는 어려서 암수구별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나무 묘목선택은 은행이 여는 암그루 접목 묘를 택해 심어야 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열매가 여는 수의 성이 있는 유실수로서 손색이 없으며 우량종묘의 은행은 매실 만큼 큰 것도 있다. 따라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유실수로 이용하는데 착안해 일 석 2조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다. 은행나무는 목질이 좋아서 가구를 만드는데 쓰임으로 우량 목재생산을 위해 산림녹화의 수종갱신을 은행나무로 했으면 한다.

이처럼 이용도가 많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있는데 무작정 심을 것이 아니라, 은행나무의 특성과 수익성을 생각해서 관광자원도 되고 유실수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목을 한 암그루를 많이 심어야 할 것이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의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심는다면 유실수로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생각하면서 암그루를 많이 심고 수그루를 적게 심는 배당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그루를 암그루로 만들려면 고집에 의한 방법도 있는데 전문적인 접목 기술이 따른다고 한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여름에는 녹음을 주어 좋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좋으며 은행 열매가 많이 열게 되면 유실수로서 소득도 올릴 수 있으니 소득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은행나무 가꾸는 방법을 익혀서 은행나무를 잘 가꾸고 은행잎과 은행을 잘 이용했으면 한다.

社說
중국은 동북아 평화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 중 1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로 동북아 평화의 새장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중 두 정상의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크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문제에 관한 시 주석의 인식이 반갑다. 다만 중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다.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북미 협상은 고비를 맞는 느낌이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회담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가세하여 역할을 함께 한다면 한반도 평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시 주석은 올해 상반기에 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와중에 그렇게 했다. 당시 중국은 '차이나 패싱'을 염려하면서 북미 관계 진전을 견제하고, 북한은 중국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신경전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안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주요 2국(G2)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군사 대국화나 역대 경제 패권을 추구하는 모습만으로는 국제사회를 이끄는 강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진정한 대국의 면모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국제 리더십을 입증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 비핵화는 중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으로서도 비핵화는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 해법이다. 북한 비핵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통 크게 접근한다면 관련 당사국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스모그,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웃 국가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중국이 선린 국가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시 주석은 내년에 한국과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행보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독자 기고

난방기구 사용 주의하세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은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한 난방기 사용이 주원인이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한 요즘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가정용 보일러, 석유난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 히터는 주변에 수건이나 이불 등

연민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중독물이 묻은 옷과 신발은 신속히 벗겨 다량의 물을 이용해 깨끗이 씻어 내리고 눈에 중독물이 들어갔을 때는 눈을 뜨고 최소한 10분 이상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기도를 유지하고 내용물이 폐 흡인이 되는 것을 방지 하도록 주의한다.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약물에 의해 식도, 기도점막의 손상,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약물에 의해 호흡기관이 주 증상 으로 발생할 경우 산소 투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코를

일어나면 큰불이 될 수 있으니 정전기에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한 번 불이 나면 쉽게 진화되지 않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소방안전상식에 관심을 갖고 난방기구 사용 등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효정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 중 1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독자 기고

가을철 약물중독 응급처치는 이렇게

일상생활 중 약물중독에 노출됐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만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은 약물중독 시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되도록 빨리 구토를 시킨다. 위장내에 약물이 머물며, 체내 흡수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구토를 유발하도록 하며 물에 녹인 황토물을 먹이는 것도

좋다. 토하지 못할 때는 활성탄(숯가루)을 세 스푼을 물 반컵에 타서 마시도록 하면 흡수가 지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독되었을 시에는 환자를 격리시키고 오염물을 제거한다. 중독된 사람은 중독현상과 격리시켜 놓고 중독물이 더 이상 피부 등에 묻거나 오

늘려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거나 입을 막고 코로 숨을 불어넣어 준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상호흡을 되찾을 때까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후 급격히 빨리 전문 치료 병원으로 후송해 한 두 모금 정도를 음독한 경우 6시간 안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살균, 살충제는 해독제가 개발되어 있으나 파라쿼트(그라목손)는 해독제가 없어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백종희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시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만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 (전남도민일보) featuring the slogan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A fair newspaper that reads the world). It includes a list of regional branches with their respective staff member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layout features a magnifying glass over a newspaper and a fountain pen.